

주보

2025. 9. 28.

위임목사 **이영훈**
(Senior Pastor Rev. Younghoon Lee)
부 목 사 **양승호**
(Pastor Rev. Seunggho Yang)

◆ 2025 표어 ◆
오직 말씀으로

- ◆ 2025 교회목표 ◆
1.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2.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3.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새로운 소망
희망의 70년을 향하여

주 일 예 배 순

Sunday Worship Service

2025. 9. 28.

예배로 부르심	요(John) 4:24	사회자
Invocation		Presider
찬송	8장(통9장) 4절	다같이(일어서서)
Hymn	Hymn No. 8 v. 4	All Together(Please Stand)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일어서서)
Confession	The Apostles' Creed	All Together(Please Stand)
찬송	1부: 310장, 2·3·4부: 93장, 주일저녁: 304장	다같이
Hymn	(통410장) (통93장) (통404장)	All Together
기도		기도자
Prayer		Prayer
성경봉독		사회자
Scripture Reading		Presider
1부 왕상(1Kgs.) 22:29~36		
2·3·4부 요(John) 11:23~26		
5부 대학청년 계(Rev.) 1:1~3		
주일저녁 요일(1John) 4:8~11		
찬양		찬양대
Anthem		Choir
설교		설교자
Sermon		Preacher
1부 일단 순종하고 가면 사는 것입니다		양승호 목사
If We Obey and Go, We Will Live		Rev. Seungho Yang
2·3·4부 절대 절망이 변하여 절대 희망으로		이영훈 목사
Absolute Despair Transformed into Absolute Hope		Rev. Younghoon Lee
5부 대학청년 때가 가까움이라		오수황 목사
The Time Is Near		Rev. Soohwang Oh
주일저녁 그 사랑		조종현 목사
The Love		Rev. Jonghyeon Jo
기도와 결신		설교자
Prayer & Altar-Call		Preacher
헌금기도		기도자
Offering		Prayer
찬송	주기도문(635장)	다같이(일어서서)
Hymn	The Lord's Prayer	All Together(Please Stand)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Preacher

2025. 10. 1.

수요일예배순

Wednesday Worship Service

사 회 / 1부 10시 30분 오수환 목사 2부 14시 박진석B 목사 3부 19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1·2부: 315장(통512장) 다같이
 기도 1부: 최성봉 장로 2부: 이승현 장로
 성경봉독 1·2부: 마(Matt.) 6:31~34, 3부: 갈(Gal.) 4:4~5 사회자
 찬양 1부: 베데스다 찬양대 2부: 시온 찬양대 3부: 호산나 찬양대
 설교 먼저 구할 것 1부: 이영훈 목사 2부: (스크린)
 하나님 자녀의 명분 3부: 홍성복 목사
 헌금기도 1부: 이문주 안수집사 2부: 강승규 안수집사

2025. 10. 3.

금요일성령대망회순

Friday Night Holy Spirit Prayer Meeting

사 회 / 이준희B 목사 20시 30분
 기도 고재영 장로
 성경봉독 민(Num.) 20:7~13 사회자
 찬양 겹세마네 찬양대
 설교 함께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양승호 목사

2025. 10. 4.

토요일성찬예배순

Saturday Communion Worship Service

사 회 / 오태정 목사 10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요(John) 4:24 사회자
 찬송 354장(통394장) 다같이
 기도 변국찬 장로
 성경봉독 전(Eccl.) 3:1~3 사회자
 찬양 가브리엘 찬양대
 설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 차진호 목사
 헌금기도 정윤재 안수집사

금주의 찬양

Choir Anthem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주일1부	베 다 니	강 내 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수 요 1부	베 데 스 다	김 호 식	위대하신 여호와
주일2부	베 들 레 험	데이비드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수 요 2부	시 온	조 현 호	사랑의 주 예수
주일3부	예루살렘	여 자 경	주님	수 요 3부	호 산 나	윤 규 섭	대하시리라
주일4부	나 사 렷	이 종 진	성령의 새 바람	금요일예배	겹세마네	송 성 철	믿음으로 주 따르리
5부 (대환절)	원 마 누 엘	이 수 범	대하시리라	토요일예배	가 브 리 엘	이 용 중	사랑의 주 예수
주일저녁	에 벤 에 셀	김 영 준	신실하심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라바가
 다시 살아나라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
 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하줄임)
 (요 11:23~26)

사 회

1부 07:00 김 명 희 목사
 2부 09:00 정 용 훈 목사
 3부 11:00 권 성 민 목사
 4부 13:00 김 정 대 목사
 5부 14:30 최 성 민 목사
 주일저녁 17:00 이 재 우 목사

대표기도

1부 황 정 익 장 로
 2부 이 강 우 장 로
 3부 강 춘 조 장 로
 4부 조 용 순 장 로
 5부 임 재 만 장 로
 주일저녁 박 승 목 장 로

헌금기도

1부 박 병 화 안수집사
 2부 공 보 영 안수집사
 3부 황 규 용 안수집사
 4부 김 정 윤 안수집사
 5부 지 윤 정 성 도
 주일저녁 이 성 일 안수집사

절대 절망이 변하여 절대 희망으로

(Absolute Despair Transformed into Absolute Hope)

요(John) 11:23~26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은 삶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입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때로는 그 슬픔이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남아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절대 절망에 처한 가정 (A Family in Absolute Despair)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삼 남매는 주님을 가까이 모시며 섬겼던 가정이었습니다(요 11:2). 그러나 부모님처럼 믿고 의지하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두 자매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슬픔과 상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사산한 부모, 미숙아를 떠나보낸 가정의 눈물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위로를 붙들어야 합니다.

2. 절대 절망이 주는 교훈 (Lessons from Absolute Despair)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1:4). 이는 고난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도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13년의 긴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창 50:19~20). 이처럼 인생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 절대 희망을 선포하신 예수님 (Jesus, Who Proclaimed Absolute Hope)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요 11:23). 마르다는 그것을 먼 미래의 부활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선포하시며 죽음을 넘어서는 참된 생명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요 11:25~26). 그리고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셨고 죽음의 자리에 있던 나사로는 살아나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며 묶여 있던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의지할 때 삶을 얻매는 염려와 근심에서 풀려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News Board

◆3대 온가족 총동원 특별새벽기도회

일시: 10월 11일(토) 새벽 6시 30분 / 장소: 대성전 / 설교: 이영훈 목사

◆제98회 추계지구역장 세미나 및 특별새벽기도회

일시: 10월 15일(수) 오전 10시, 10월 14일(화)~16일(목) 새벽 5시 30분 / 장소: 대성전 / 설교: 이수형 목사

예 배

1.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9월 넷째 주 새벽예배-일시: 9월 29일(월)~10월 4일(토) 새벽 5시 30분(토요일은 새벽 6시 30분) / 장소: 대성전
설교: 이영훈 목사(30일), 오수황 목사(1일~3일), 변원중 목사(29일, 4일)
3. 남산교회 10월 헌신예배
일시: 10월 15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바울성전 / 설교: 강신호 목사

모 집

1. 교무국교육영성훈련원 오순절기도학교 2025년 4학기 참가자 모집-문의 ☎ 02-6181-7465, 7433
일시: 10월 1일(수)~12월 31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장소: 세계선교센터 1층 102호

안 내

1.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베들레헴성전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새가족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등록 및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교회학교 2026학년도 수험생 및 취업생 자녀를 위한 여리고 기도회
일시: 9월 28일(주일)~11월 2일(주일) 매 주일 오전 10시 40분, 11월 9일(주일) 오전 8시 30분 장소: 브니엘성전(비전센터 6층)
3. 안수집사회 2025년 3분기 보수교육
일시: 9월 28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안수집사회실(세계선교센터 3층) / 강사: 김판호 목사
4. '신앙계' 10월호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신 후 성경공부 및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교회 내 각종 판매행위(다단계 등) 또는 성도 간 투자권유 및 금전거래를 금지합니다.

▣ 다음 주간(10/5, 10/8, 10/10, 10/11) 대표기도(장로)

성찬예배(10/5)						수요예배(10/8)	1부:이유세 2부:조준석
1부	2부	3부	4부	5부 대학청년	주일저녁	금요성령대망회(10/10)	박성수
최성태	김규범	문성익	김재수C	이현재B	박은용	토요예배(10/11)	김태봉

▣ 교회 대표전화 (주간) ☎ 02-6181-9191, (야간) ☎ 02-6181-9000~3

▣ 의례팀(장례 상담 및 조화 신청 시간 07:00~20:00) ☎ 02-6181-6533

푸른 눈의 소록도 천사

1962년, 스물여섯 살의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느 스토거가 한국의 작은 섬을 찾아왔습니다. 소록도병원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소명이 되었고, 4년 후에는 간호대학에서 함께 생활했던 마가렛 피사렉도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여성을 ‘푸른 눈의 소록도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맨손이어야 약을 꼼꼼히 바를 수 있다.”라며 주변의 만류에도 환자들의 상처를 직접 어루만졌습니다. 환자들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2005년, 세월이 흘러 일흔을 넘긴 두 사람은 “환자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짧은 편지를 남기고 조용히 섬을 떠났습니다. 손에는 43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들고 온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훗날 마리안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소록도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한 섬김을 통해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외롭고 소외된 이웃이 있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타인에게 다가가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긴 추석 연휴 동안 우리도 누군가의 천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대한 '가'침의 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교회 대표번호 ☎ 02-6181-9191